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5-10호 2005년 10월 16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아무도 교만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의 모습대로 그대의 육신을, 또한 당신 자신과 비슷하게 그대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참조: 창세 1,26), 그분께서 그대를 얼마나 높이 세웠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창조주를 그대보다 더 잘 섬기고 인식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가 마귀들과 더불어 그분을 못박았으며, 그대는 지금도 악습과 죄악을 즐기면서 그분을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 그대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조: 1고린 13,2) 모든 이상한 언어를 (참조: 1고린 12,28) 해석할 수 있고, 천상 일을 환히 꿰뚫어 볼 정도로 예리하고 명석하다 하더라도, 그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혜에 대한 특별한 인식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해도 한 마리 마귀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천상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지상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생겼고 더 부유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은 그대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참조: 2고린 12,5)이며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 영적 권고 6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께로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발견되는 “미”와 “선”을 통하여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올라갈 줄 알았다.

진정 그는 창조주의 지혜와 힘과 선을 관조하면서 해를 쳐다 볼 때, 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별과 창공을 응시할 때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쁨에 자주 자주 도취되곤 하였다 (1첼 30).

성인이 새들에게 설교를 한 이야기를 말한 후에 첼라노가 덧붙인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날부터 그는 모든 새들과 동물 그리고 파충류에게까지, 비록 감각 없는 피조물에게까지도 그들이 창조주를 찬미하고 사랑할 것을 열의를 다하여 권하였다 (1첼 58).

그래서 성인은 모든 피조물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탁월한 방법과 예민한 감성으로 사물의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 이미 그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된 자유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1첼 81).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람, 동물, 식물, 광물은 다 한가족을 이루고 있다. 성인은 자매 새들이나 자매 꽃들에게 혹은 자매 물, 자매 바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권할 때 이들이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피조물의 말을 빌어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다.

-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중에서

“태양의 노래”에 관하여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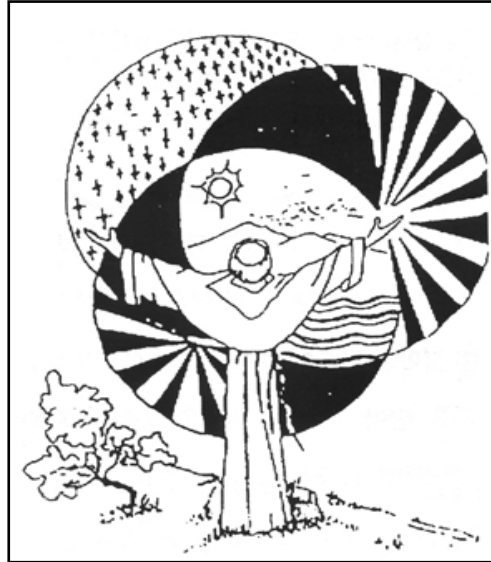
프란치스꼬의 전기작가들은 이 노래를 “피조물의 노래”, “태양의 노래”, “주님의 찬가”, “자매인 죽음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 4가지의 내용이 이 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송가는 3시기를 거쳐 3단계로 기술되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9절까지는 프란치스꼬가 피조물을 꿰고 난 다음 새로운 눈으로 피조물을 보면서 노래한 것이다(피조물의 노래). 그리고 둘째 부분인 10절과 11절은 주교와 아씨시 시장과의 불화 중에 프란치스꼬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노래한 것이다(용서의 노래). 셋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는 프란치스꼬가 죽음을 앞두고 첨가하였다(죽음의 찬가).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은 1225년에 작성하였고, 마지막 부분은 1226년 작성하였다. 프란치스꼬의 친저성(親著性)에 대한 의심은 없다. 이 찬가는 그리스도교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걸작 중의 하나이며 프란치스꼬가 옛 이탈리아어로 쓴 작품 중에 남은 유일한 작품이다. 이 찬가는 이태리 문학의 초기 작품이다.

내용

이 찬가는 매우 아름답고 낙천적인 노래로서 전 인류를 향하는 사랑의 교향곡의 공명관이다. 성인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느님 찬미에로 초대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따라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태양, 달, 별, 바람, 물, 불, 땅 등을 불러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첫째, 이 찬가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송가이다.

둘째, 이 찬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만 속하도록 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종속관계의 한 표현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한 하나의 초월적인 찬가이다.

셋째, 이 노래에서 프란치스꼬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주 전체가 한 형제애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 하느님을 찬미케 하는 노래이다.

넷째, 이 찬가는 프란치스꼬로 하여금 자기 고독과 자기 연민에서 탈피하도록 해 주는 경탄할 만한 노래이다.

프란치스꼬는 잃어버린 낙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세상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 찬가 안에 표현되어 있는 형제애는 외적인 피조물들을 통하여 묘사되었지만, 실은 영혼 資結에 뿌리 박혀 있는 상호간의 사랑을 상징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섯째, 하느님께로의 상승은 적막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교에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이 찬가에서 느낄 수 있다.

일곱째,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 화해와 친교가 먼저 요구됨을 이 찬가에서 절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향하는 이 사랑의 교향곡 안에 자연을 사랑하는 프란치스꼬의 애정이 담겨져 있고, 또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자매로 보고 있는 프란치스꼬의 초월적인 영성이 이 교향곡 안에 담겨져 있다.

.....

‘태양의 노래’는 2005년 7월 월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 대축일

권세있는 자를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 올리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느님, 주님 친히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를 당신 아드님과
같아지도록 부르시어 가난하게 순명하면서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라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보여준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의
전구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만남은 하늘의 책임, 관계는 땅의 책임

세상의 모든 일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화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만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관계는 땅에 속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듯이,
만남과 관계가 잘 조화된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한 관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뜻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에게만 생겨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대가를 치를 때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
'부모, 자녀, 형제, 이웃, 친구, 동료.....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투자하면
반드시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중에서 -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 주어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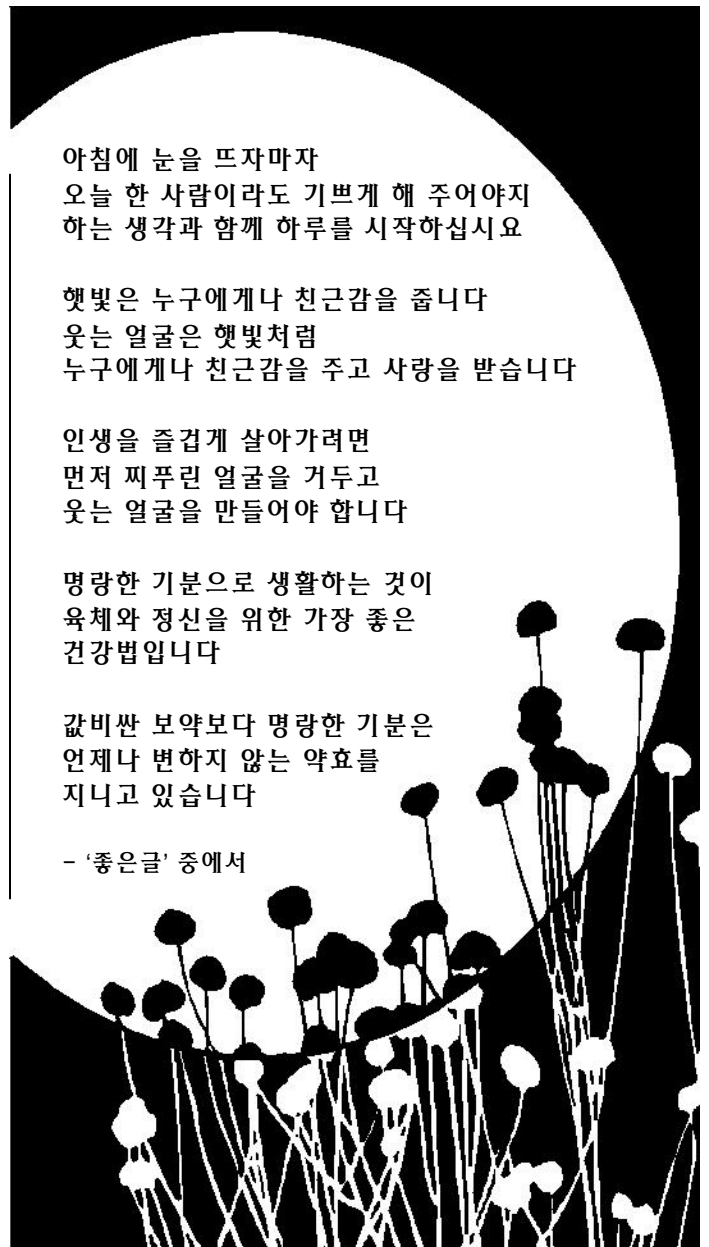
햇빛은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줍니다
웃는 얼굴은 햇빛처럼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고 사랑을 받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먼저 찌푸린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명랑한 기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 '좋은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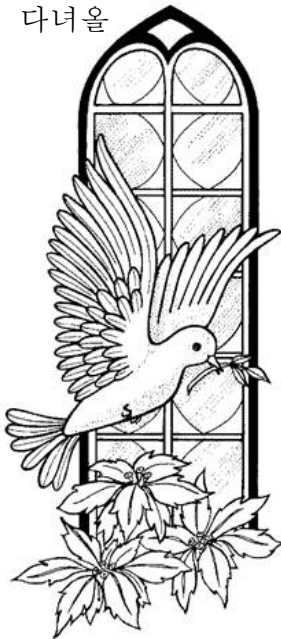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10월 3일 저녁 7시부터 DC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있는 사부님의 축일 전야 행사에 12명이 다녀왔으며 한만섭 바오로 형제께서 축대를 들고 입당하셨고 강수연 마리아 자매가 한국말로 신자들의 기도예에 참석하였습니다.
- 사부님 오상축일인 9월 17일 오전 11시 Holy Name 관구의 Camillo 수도원 성당에서 있는 Thomas Conway 신부님의 서품식에 한만섭 형제와 한테레사, 손마리아, 김미경 자매가 다녀왔습니다.
- 카트리나 폭풍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에 모은 \$500을 지구 형제회에 보냈습니다.
- 구역모임은 예전과 같이 당분간 계속 4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 11월 27일 구역반모임 대신 대림 피정이 성당에서 12시부터 있습니다.
- 10월 21-23일 웨스터 버지니아의 Priestfield에서 있을 지구형제회 피정에 6명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새로 오신 지원자들을 환영합니다

이계숙 가브리엘라	황순옥 수잔나
이희연 로사	정수정 안나
남석현 야고버	전혜숙 루시아
고경애 글라라	백부전 모니카
정형순 요세피나	한장형 베드로
박향림 엘리사벳	국영주 발비나
곽종무 토마스 아퀴나스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세계 곳곳에 일어난 천지지변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집과 가진것 모두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
- 보나벤투라 형제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특히 새로 오신 지원자들을 위해 ...
- 강동훈 형제의 할머니 마리아 자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17일 월요일 저녁 8시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에서 사도 예절과 함께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성 정 바오로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있겠습니다. ...

10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미사
3:40 PM - 친교, 회비/후원회비 납부
4:00 PM - 월례회

✂ 미사 성가: 지침서 ✂

입당: 6번 성체: 42번
봉헌: 32번 마침: 1번

신자들의 기도:

강동훈, 강영순, 송정임, 김준호



본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10월 1일 하진순 데레사
10월 15일 한기남 데레사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497-0069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병두 신부 O.F.M. berdiofm@hanmail.net